

# 崔惟淸의 삶과 詩

李 九 義

## 〈目 次〉

- |           |               |
|-----------|---------------|
| 1. 문제 제기  | 2. 聲과 이미지의 一致 |
| 3. 陳述의 表現 | 4. 世界觀과 삶의 態度 |
| 5. 遊興과 省察 | 6. 마무리        |

### 1. 問題 提起

崔惟淸<sup>1)</sup>(1095, 현종1~1174, 명종4)은 본관은 昌原으로 崔奭(生沒年代 未詳)의 아들이다. 睿宗 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直翰林院이 되었으나 인종 초에 李資謙의 간계로 파직 당했다. 이자점이 몰락한 뒤 내시에 속했다가 1132(仁宗 10)년에 예부원랑으로 진주사가 되어 송나라에 다녀왔다. 1142년 諫議大夫로서 금나라에 가서 책명을 사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 戶部侍郎으로 東北面兵馬副使가 되었다. 1149(毅宗3)년 지추밀원사판삼사사병부상서에 이어 참지정사판상서형부사가 되었고, 이듬해 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 1151(의종5)년 판병부사를 겸직했다. 이해 처남인 낭중 정서와 왕제 대녕후 경이 참소를 입는 사건에 연루되어 南京留守使로 좌천되었고, 1157(의종11)년 경이 천안부에 좌천될 때 또 충주목사·경주목사 등으로 좌천되었다. 1161(의종15)년에 봉원전 대학사에 이어 다시 中書侍郎平章事에 올랐고, 1172(명종 2)년에는 수사공집현전판예부사로 치사했다. 그는 경사에 밝았고 불경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글씨도

1) 『高麗史』 卷第99 列傳 第12, 參照.

잘 썼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아들 여덟을 두었는데, 崔證·崔詡·崔諶·崔讓·崔詵·崔讓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승려가 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최증·최후·최당·최선은 과거에 급제<sup>2)</sup>하여 그들의 아버지와 더불어 창원최씨 문벌을 형성하였다.

崔冲의 海州崔氏·李子淵의 仁州李氏·金富軾의 慶州金氏 등의 家學 중심으로 한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문벌이 모두 국가 권력의 비호 아래 있었음에 반하여, 昌原 崔氏의 최유청의 문벌은 학덕의 평화로운 문벌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최유청은 睿宗 때에 처음 관계에 발을 들여놓은 뒤로 의종과 명종 때까지 활약한 문인이며 학자이다. 최유청이 활동을 한 때는 바로 고려 전기의 문풍이 한창 무르익어 갈 때였다.

또 그 당시 중국에서는 송나라와 금나라가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이기도 한데 최유청은 김연과 더불어 그 당시 고려와 금나라 사이에 오고 가는 표장을 전달했던 것이다<sup>3)</sup>. 그리고 최유청이 활약하던 시기 우리 나라의 시풍은 당풍과 송풍이 병존하고 있었으며, 송시풍이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였다. 송시풍 가운데서도 소동파(1036~1101)시풍이 유행하고 있었을 때였다.

2) 위의 책, 같은 곳.

3) 이점에 대해서는 『동문선』 권 30에 무명씨가 지었다고 하는 「金垢讓中大夫國子祭酒左諫議大夫翰林侍講學士依前知制誥不允批答」이라는 제목의 글에 그 일단이 보인다. 즉, “옛날 인종 때에는 김연·최유청이 대금국과 내왕하는 표장을 맡았었고, 나의 부왕 고종 조에는 이규보·최자가 몽고와 교섭하는 문자를 작성하더니, 짐이 즉위할 때쯤에는 네 화려한 붓의 힘에 의지하게 되었다.(昔仁廟之代 金緣惟清專掌大金來往之表章 我寧考之朝 奎輟崔滋財成蒙古 交通之文字 及朕躬之負辰 憑爾筆之擒華)”이 그것인데, 이 글은 『동문선』에는 무명씨의 작으로 되어 있지만, 자세히 검토해 보면 高宗의 아들인 元宗이 지은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지은 사람의 父王이 고종이니까, 고종의 아들은 바로 원종이 아니겠는가?

이 글에서 보면 인종 때에는 김연과 최유청이 금나라와 주고받는 외교문서를 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교문서를 전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장력이 뛰어났다는 말과 서로 통한다. 이 말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고려사』 「열전」에 실려 있는데, “최유청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경·사·자·집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고 도 부처를 흑신하여 날마다 불경을 외우고 있었다.(自幼至老 手不釋卷 經史子集 靡不該通 又酷好浮圖 日誦佛經)”이라고 하는 문구를 봐도 그의 학문 능력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최유청에 대한 논문은 단 한편도 없다. 최유청보다 좀 뒤에 활약한 이규보의 논문이 수 백 편인데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 점은 물론 이규보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작품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하고 있는 최유청의 작품은 『東文選』에 詩가 15首, 文이 39篇으로 문이 시보다 많다. 文이 詩보다가 많이 남아 있지만, 현재 전하는 문은 대부분이 公的인 것이다.

본고는 최유청의 삶과 시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삶에 대한 연보가 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그의 일생에 있어 일어난 큼직한 사건들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의 삶에 따라 그의 시가 어떠한 변화를 거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그의 시에 그의 삶이 어떠한 형태로 녹아 있는가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위의 목차의 순서에 따라 본고를 진행하기로 한다.

## 2. 聲과 이미지의 일치

漢字에는 四聲이 있고, 近體詩에서는 이 韻과 더불어 이 四聲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성과 이미지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다음의 「雜興」이라는 제목 밑의 아홉 수의 시 가운데 그 첫 번째 것을 들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春草忽已綠	봄풀이 어느새 푸르고
滿園胡蝶飛	은 동산엔 나비 날아다니네
東風欺人睡	잠든 틈에 동녘바람 몰래 와서
吹起床上衣	평상 위의 옷자락 펄럭이네
覺來寂無事	잠깨니 호젓해 일 없는데
林外射落暉	서산 마루엔 저녁해 눈부시네
倚檻欲歎息	난간에 기대에 탄식하려다
靜然已忘機	고요히 어느 새 생각 잊었네

먼저 이 시의 평측을 따져 보면 다음과 같다.

1 2 2 2 2 2 1 1 1 1 1  
 1 1 1 1 2 1 2 1 2 2  
 2 1 2 1 2 1 2 2 2 1  
 2 2 2 2 2 2 1 2 2 1 (1: 平聲, 2: 仄聲)

首聯부터 따져 보면 다음과 같다. 봄(春)은 평성이다. 평성은 ‘安而和’, ‘平聲平道莫低昂’이다. 평성은 평안하면서도 부드럽고, 또 평성은 평평해서 높낮이가 없다는 말이 된다. 봄이 되니 만물이 소생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따뜻해지면 유생물들은 모든 동작을 시작하는 것도 바로 같은 이치이다. 春이 진행·개방·발전의 상태라면, 춘을 제외한 다른 네 글자는 정지 상태에 있다. 草는 움직이지 않는다. 물론 풀은 봄을 맞아 자라겠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풀이 움직이지 않은 것과 더불어 풀의 색깔(푸름:綠) 또한 변화가 없다. 또 忽과 已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두 글자는 풀(草)과 푸름(綠)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首聯의 對句 가득(滿)은 동산(園)을 수식한다. 동산이 평성인데 반해 가득은 측성이다. 따라서 滿은 園에 붙어 정지되어 있다. 동산이 개방적이고 생동감을 부여한다고 한다면 가득은 폐쇄적이고 정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나비(胡蝶)는 다르다. 봄을 맞아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 움직이지 가만히 있지는 못한다. 즉, 나비는 열려 있는 동산을 자유자재로 왔다갔다하며 꽃을 찾는다. 나비 하나만 해도 율동적인데 또 그 뒤에 ‘날다(飛)’라는 말은 이 나비의 운동감을 한층 더 해준다. 園·胡·蝶·飛는 모두 평성인데 맨 앞의 滿만이 측성이다. 나비가 동산에서는 마음대로 날아다니지만, 동산을 벗어나지 못한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나비가 제 마음대로 날아 동산을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 시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못된다. 그만큼 ‘滿’字 나비와 동산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정적 자아인 시인은 가득(만)과 동산(원)·나비(胡蝶)·날다(飛)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頷聯을 보면, 東·風·欺·人은 모두 평성인데 반해 睡는 측성이다. 시인인 서정적 자아가 잠든 사이에 동풍이 살며시 붙어 왔다. 동(東)이라는 글자는 앞聯의 春과 서로 통한다. 五行에서 동쪽은 바로 봄에 해당하며, 또 나무(木)에 해당한다. 東과 風은 홑은 다르지만 聲은 평성에 속하며 韻도 東韻으로 서로 같다. 즉, 東風은 疊韻이 된다. 東과 風이 서로 결합하여 봄바람(東風)이 되니 한층 더 율

동감이 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에 불어오는 봄바람은 그 자체가 성장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또 시인은 '평상 위에 있으니 옷자락이 바람에 나풀거린다'고 했다. 옷자락이 비록 바람에 나풀거리고 있지만 시인의 몸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는 일어나다(起)라는 말에서 동작감을 느끼는 것 같다. 사실 '일어나다(起)'는 동작은 하지만 시인은 자기 마음대로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시인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입고 있는 옷이 비록 바람에 날리기는 하겠지만, 그 옷이 어찌 시인의 몸을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바로 옷이 시인의 몸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起인 것이다. 床의 聲은 평성이다. 침상 위로는 바람이 불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옷이 나풀거린다. 그러나 나풀거리지만 옷은 날아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上과 衣의 聲은 모두 축성이어서 정체가 되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頸聯을 보면, 시인이 잠을 깨니 사망은 고요하고 또 할 일도 없다. 覺은 축성이고 來는 평성이고, 도 寂은 축성이고 無는 평성이다. 축성 사이에 두 개의 평성이 있다. 하지만 축성의 힘에 비해 평성이 평은 약하다. 따라서 서정적 자아, 즉 시인은 움직일 수가 없다. 對句도 마찬가지이다. 평성이 양 가에 있고, 그 가운데에 축성이 있는데 그 힘은 중간 축성의 힘이 강하다. 따라서 숲밖에 석양이 비치고 있는데, 그 비치고 있는 석양이 시인의 눈에는 공간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尾聯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탄식한다(歎息)'는 말 자체는 동작이다. 그러나 聲에서 보면 이 '탄식'은 움직이지 않는다. 몸이 난간에 기대어 있고 그 난간에 기대어 시인의 몸을 탄식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歎息', 그 자체가 축성이어서 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시인의 몸을 벗어날 수가 없다. 對句도 마찬가지이다. 닫힘+열림+닫힘+닫힘+열림으로 되어 있다. 전체로 보면, 닫힘이 많아 정체가 되어 있다. 하지만, 마지막 글자가 열림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시구는 열린 상태에서 정체를 버린다. 즉, 시인이 세상의 이치를 통달해버리는 데에서 이 시는 끝을 맺는다.

이처럼 한시에 나타난 聲은 시의 이미지와 의미와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성과 이미지와의 상호 관련성은 비단 최유청의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겠지만, 최유청의 시에서도 聲과 이미지가 잘 조화하고 있다. 또 聲이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그 의미와도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聲이 의미와 서로 합쳐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준다. 평성이 개방·진전·가벼움

을 나타낸다면 축성은 정지·폐쇄·퇴보·무거움 등의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 3. 陳述的 表現

위에서 분석한 시처럼 최유청의 시 가운데에는 이미지를 부각시킨 시도 있지만, 그 시 가운데에는 묘사를 한 것이 아니고 시인 자신의 심정을 진술한 것이 많다. 즉, 『시경』에 등장하는 興·比·賦體 가운데 賦體의 범주에 드는 것이 최유청의 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잡흥」이라는 제목의 다섯 번째 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默默又默默	묵묵하리 또 묵묵하리
百年會有極	한 백년도 마침 끝이 있어라
頭上蓬已疎	머리에는 머리털이 이미 성긴데
眼邊花正黑	눈에는 눈동자 희미해 오네
春至苦無棕	봄이 와도 흥이 나지 않으니
夢歸竟何益	귀향 꿈 무슨 소용이 있으랴
舉頭看白日	머리를 들어 밝은 해 바라보니
長安在西北	장안 땅은 저 멀리 서북에 있네

시인이 이 시를 지은 시기는 仁宗 때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기 전후이거나 아니면 毅宗 때 그의 처남인 鄭敼의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일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하면, 이 시를 지은 시기는 시인 자신의 벼슬살이가 순탄하지 못한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 전체를 흐르고 있는 정조는 그다지 밝지 못하다. 이 시는 바로 시인 자신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할 때 지은 것이다. 사회에 대한 불만도 자기 자신이 잘못을 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억울하게 참소를 당한 데에 대한 불만인 것이다.

이제는 말하지 않겠다는 시인의 맹서가 이 시를 처음 시작할 때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드니 머리카락은 빠지고, 또 세었다. 뿐만 아니라 노안이라 눈은 희미하여 사물을 분명히 식별하지 못하니, 봄이 왔지만 흥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

꿈 속에라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지만 시인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머리를 들어 태양을 바라본다고 했으니, 이 태양은 하늘에 떠 있는 해도 되겠지만 한 나라의 임금도 된다. 여기서 보면 표면적으로는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말하고 있으나, 이면적으로는 자신이 그리워하는 궁궐에 계신 임금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마지막 연의 對句에서 도읍 즉, 임금님이 계신 곳은 멀리 서북쪽에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는 묘사적인 것이 아니고 진술적으로 연과 연, 구와 구를 연결하고 있다. 시의 생명이 묘사라고 하지만, 이 시는 시인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진술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공감을 하게 한다.

里閭蕭索人多換 마을도 쓸쓸해라, 바뀐 얼굴도 많고  
 墻屋傾頹草半荒 무너진 담집에 풀은 거의 시들어  
 唯有門前石井水 대문 앞 우물만이 오로지 남아  
 依然不改舊甘涼 달고 상큼한 물맛은 여전하구나

이 시는 「初歸故園」인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가 처음으로 고향에 가서 느낀 정회를 읊조린 것이다. 그가 관직 생활을 하다가 고향에 가보니 고향은 많이도 변해 있었다. 마을도 황량하고 또 옛 사람들은 많이 죽었고, 새로이 태어난 아이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사람이 살지 않아 무너진 담장 그리고 마당에는 잡초가 시들어 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것은 지금도 옛날처럼 좋은 물맛이다. 물론 이 시에는 이미지가 있다. 그러나 그 주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진술이다. 聲韻만 무시했다면, 詩가 아니라 文으로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이 시는 마치 고려 말의 여러 학자들이 고려가 망하고 난 뒤에 읊조린 회고시와 규모는 비록 다를지라도 그 성격은 같다고 하겠다.

人生百歲間 사람의 한평생 백년동안은  
 忽忽如風燭 홀연히 바람 앞의 촛불 같구나  
 且問富貴心 부유하고 귀한 것 물으면  
 誰肯死前足 누가 죽기 전에 만족할까  
 仙夫不可期 신선될 기약도 없는데

世道多翻覆 세상 살이 번복도 많은지고  
 聊傾北海尊 애오라지 북해의 술통 기울여  
 浩歌仰看屋 지붕 쳐다보며 노래나 불러 볼까?

이 시는 「잡흥」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인데, 이 시도 역시 묘사적인 것이 아니라 진술적인 것이다. 사람의 한 평생이 가만히 보면 바람 앞의 촛불처럼 부질없는 거인데, 인간은 그래도 부유하고 귀한 것을 추구하며 구하고 또 구하고 아무리 구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고 한다. 부질없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죽기 전까지는 재물과 명예에 욕심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신라 때의 최고운이 「寓興」이란 시에서 말했듯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잃을 줄도 모르고 진주를 캐기 위해서 바다 밑으로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재물과 명예를 아무리 욕심 내도 죽어서는 신선이 될 기약이 없다고 했다. 그 뿐이라 세상의 일은 번복이 심하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에 따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소유나 명예 등의 욕심에 얽매어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술이나 실컷 마시고 크게 노래나 불러 볼까 하고 시인은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유청은 그의 시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바로 최유청의 성격이 우회하기보다는 솔직하고 담백한 것을 좋아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점에서 이 시는 송나라의 梅堯臣이나 歐陽修 또는 林逋 등의 시와도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sup>4)</sup>.

#### 4. 世界觀과 삶의 態度

본 항에서는 최유청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는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몇 수의 시를 분석해 가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얻어 보자. 먼저 「잡흥」이라는 제목의 시 가운데 그 다섯 번째의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蒼蒼山中桂 푸르고 푸른 산 속의 계수나무  
 托根臨巖巖 험한 바위 틈 새에 뿌리 박았네

4) 이 점에 대해서는 拙稿, “陳澧詩에 나타난 中國 詩人 受容 樣相”(語文學, 第50輯, 韓國語文學會, 1989. 5.)을 참고하기 바란다.



霰雪紛可畏 휘몰아치는 눈보라 두려우나  
 孤貞亮難移 외롭고 곧은 절개 꺾기 어려워  
 夜月冷相照 밤 달은 차갑게 비춰주고  
 春風綠漸滋 봄바람에 푸른 빛 날로 더해가  
 攀枝久佇立 나뭇 가지 잡고 한동안 서 있다가  
 空詠小山辭 속절없이 소산사를 읊조리네

이 시는 시인 자신의 삶의 태도를 묘사하고 있다. 깊은 산속 험한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계수나무는 바로 시인 자신 처지를 말한 것이다. 험한 바위 틈이 시인 자신이 처한 세계를 말한다면, 계수나무는 그 험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시인 자신이다. 함련의 휘몰아치는 눈보라 역시 험난한 세상을 말하며, 그 험난한 세상에서 절개를 지키려고 하니 어렵고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시는 首聯에서 頸聯까지 서로 대립적인 심상을 내세워서 시인 자신의 절개 곧음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 즉, 蒼蒼·桂·春風·貞은 바로 시인 자신을 嶮巖·霰雪·夜月·冷은 시인 자신이 처한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바로 어려운 환경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깨끗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인, 즉 서정적 자아의 깨끗함이 尾聯에 오면 망설임으로 변하고 만다. 나뭇가지를 잡고 한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속절없이 소산사를 읊조린다고 했으니, 아직은 완전히 시인 자신이 처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소산사를 읊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小山辭'라는 것은 흔히 시인들의 작품에 나오는 고사로, 漢나라의 淮南王 劉安 門下의 大山·小山 등의 무리들이 '招隱辭'를 지었는데, 산 속에 숨어 있는 선비에게 세상에 나오라고 부른 것이다. 즉, 시인 자신이 험난한 세상에 나가느냐, 아니면 나가지 않느냐 하는 고민에 빠져 있다. 그러나 현재 시인의 마음은 前者 쪽이 더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幽人夜不寐 은거하는 사람 한 밤내 잠 못 들다  
 待曉開窓扉 새벽이 되어 창문을 열어 쫓더니  
 曙色天外至 하늘 밖에서는 먼동이 트는데  
 空庭尙熈微 빈 뜰은 아직도 희미하구나  
 南枝動春意 남쪽 가지에는 봄을 느끼고  
 歸鴈正北飛 기러기는 북쪽으로 돌아가려네

萬物各遂性 만물은 제 각기 분수를 따르니  
 仰賀璇與機 천도의 유행을 우러러 감사하네

이 시는 「잡흥」 가운데 네 번째 시인데 서정적 자아, 즉 시인 자신이 자연의 섭리를 어느 정도 터득한 경지에서 읊조린 것이다. 세상을 등지고 은거하는 사람이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 창문을 열어 젖히니 바로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 오는 黎明期인 것이다. 수련의 出句를 보면,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는 서정적 자아, 즉 시인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首聯의 對句부터 나오는 자연의 현상을 보고 문득 느끼는 것이 있다. 즉, 자연은 쉬지 않고 변화하는 것이지만 언제나 常道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도를 동·식물은 벌써 터득하여 이 상도에 순응하고 있다. 동물과 식물들, 즉 만물은 제 각기 제 분수를 따라 유행한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어떠한가? 그 해답은 바로 首聯의 出句에 있다. 인간은 바로 상도를 깨닫지 못하고,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되지 않는 일을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만큼 고뇌가 쌓이게 되는 것이다. 서정적 자아, 즉 시인은 지극한 도는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나온다는 진리를 이제야 터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인생의 연륜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난 뒤에 나오는 생각이 아닐까?

志士惜事業 지사는 사업을 아끼지 않는데  
 宵人戀珠金 소인은 재물에 욕심을 내네  
 經營雨不暇 두 가지를 다할 여가 없는데  
 羲和走駸駸 세월은 쉬지 않고 빠르기만 하네  
 荒壘廢百草 잡초 우거진 쓸쓸한 무덤에는  
 賢愚同一沈 어진 이 어리석은 이 함께 누워 있으니  
 何如且日飲 차라리 날마다 술이나 마셔서  
 實腹而虛心 배 채우고 마음 비움이 더 낫겠네

이 시는 「잡흥」 가운데 여섯 번째 시인데, 선비와 소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시인인 서정적 자아가 선비와 소인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재물에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인간의 五慾 즉, 食·色·睡眠·名譽·財物(所有)慾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은 물론 財物慾이 아니라 睡眠慾이다. 그러나 수면욕은 누구나 충족할 수 있는 욕심이기 때문에 걸로 그

다지 드러나지 않는다.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바로 재물 욕이다. 따라서 물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준에서 바로 순수한 뜻을 가진 선비이나 아니면 순수한 뜻을 가지지 못한 소인이나가 판명된다.

바로 首聯을 보면 그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순수한 뜻을 가진 선비는 바로 재물을 씀을 아끼지 않는데 소인은 바로 재물에 욕심을 낸다는 것이다. 바로 선비는 정신적인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있지만, 소인은 물질적인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頷聯에서 보면,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두 가지를 추구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왜냐하면 사람의 한평생이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 백년이 어쩌면 상당히 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긴 역사를 두고 볼 때 인생은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정신과 물질을 모두 추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頸聯에서 보면,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한 깨끗한 선비나 또 물질적인 가치만을 추구한 깨끗하지 못한 소인이나 모두 죽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이 죽으면 모두 땅속에 들어가서 묻히게 된다. 죽어서 땅속에 묻히게 되면 어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그 무덤은 같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진 사람 옆에 어질지 못한 사람이 묻힐 수도 있고,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어떻게 하겠는가? 그 해답이 바로 尾聯에서 나온다.

尾聯을 보면,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죽을 바에야 차라리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술로 배를 채우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 인간은 바로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空手來空手去)기 때문에, 살아서 재물에 욕심을 내어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으니 그것이 안타깝지 않은가? 그러니 차라리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고 마음을 비우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하겠다. 즉,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으면 저절로 자신의 마음이 맑아지게 되고 자신의 마음이 맑아지게 되면 바로 이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게 될 테니까.

我未始知禪 선이 무엇인지 처음에 나는 몰라  
 因閑聊試貫 애로라지 한가로움으로 시험했네  
 道本無可修 도란 본래부터 닦을 것도 없고  
 心須早脫絆 마음이 얼매이는 데서 벗어나는 것

一源苟淵澄 진실로 깊고 맑은 마음만 있으면  
 萬象俱水泮 만상이 분명히 풀어지리니  
 兀兀復騰騰 꼼짝 않고 우뚝 앉아 있으려니  
 且作大憨漢 또 크게 어리석은 자 되련다.

시인 자신은 본디 禪이 무엇인가를 모른다고 했다. 처음에 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한가로움으로 선이 무엇인가를 시험했다고 한다. 여기서 한가로움이란 무엇인가? 아무 할 일 없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일이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의미 어느 것도 아니다. 바로 한가롭다는 의미의 ‘閑’은 바로 ‘閑邪存其誠’<sup>5)</sup>의 ‘閑’인 것이다. 즉, 사특한 것을 막고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또 그는 도라는 것은 닦을 것도 없다고 했다. 바로 한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되는 것이 도<sup>6)</sup>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런 가운데에서 계속 변함이 없는 것이 도인 것이다. 즉,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해가 뜨는 이치와 같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운동을 하면서도 불변하는 것이 바로 도이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생각을 보면 그는 바로 인문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六載遊楊州 여섯 해를 양주 땅에서 보내었으니  
 五賞楊州春 다섯 번 양주의 봄을 즐겼었네  
 楊州春似舊 양주의 봄은 옛날과 다름없건만  
 老面但日皴 늙은 이 얼굴엔 주름 살이 더해 가네  
 壯志雖已鏤 웅대한 뜻은 이미 사글어졌지만  
 風情與時新 풍정은 철을 맞아 새로워지네  
 最憐街頭柳 가장 싫다. 길가의 버들이여!  
 嫋嫋欲惱人 하늘하늘 사람을 못 견디게 하네

이 시는 「잡흥」 가운데 여덟 번째 시인데, 시인 자신의 처지를 잘 나타내고 있

5) 이 말은 『周易』 乾卦 文言에 나오는 말인데 그 원문을 모두 옮기면 다음과 같다. 즉, “九二曰 見龍在田利見大人 何謂也 子曰龍德而正中者也 庸言之信 庸行之謹 閑邪存其誠 善世而不伐 德博而化 易曰見龍在田利見大人 君德也”

6) “一陰一陽謂之道” 『周易』 「繫辭」 上, 第5章

다. 뿐만 아니라 이 시를 지은 시기도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의종 초년에 그의 처남인 정서의 사건에 연루되어 그가 충주와 광주의 목사로 강직되었는데 7), 이 시는 그가 광주목사로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양주 땅에 온지가 육 년이 지났으니 양주의 봄을 다섯 번 맞는 것은 당연하다. 여섯 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몸은 그만큼 늙었다. 나이 든 사람의 육 년은 젊은 이 보다 훨씬 기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최유청은 봄을 맞아 그 흥취만은 아직 젊은이 못지 않게 간직하고 있다. 비록 자신의 웅대한 희망은 나이가 들어서 시들어 버렸지만, 봄을 맞아 느끼는 풍정은 새로워진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마치 여인을 연상케 하는 실버들이 바람에 하늘 걸리는 것을 보니, 그에게는 참으로 참기 어려운 일이다.

이 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비록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은 봄을 완상할 줄 안다. 그 자신이 비록 늙어 몸이 쇠약하지만 세상을 보는 눈은 그다지 비극적이지 않다. 그는 항상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가 세상을 밝게 보았던 것은 그만큼 그 자신의 인품이 후덕했기 때문이다. 『고려사』 『열전』에도 있듯이, 정중부 난 때에 대부분의 문관들이 살해당했지만, 유독 최유청과 그의 가족들은 무사했다. 그 이유가 바로 최유청이 덕망이 있어 여러 장수들이 평소부터 그에게 감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명종 때에는 그의 덕행과 명망을 계기로 中書侍郎平章事를 거쳐 守司空集賢殿太學士判禮部事로까지 승진한다.

이처럼 최유청은 가능한 세상을 밝게 보았고 또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그의 삶의 모습은 그의 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가 비록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의연하게 그 어려움에 대처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그

7) 『高麗史』 列傳 崔惟淸條를 보면 “의종 초년에 지주사로 승진되어 자신의 직무에 충실 하였으므로 벼슬이 뛰어올라 중서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판평부사로 임명되었다. 당시 남 중 정서가 대녕후와의 은밀한 사건에 연루되어 6품관 이하의지방관으로 나갔는데 최유청은 정서의 매부이므로 정서가 대녕후를 초대할 때에 정서에게 그릇을 빌려준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간관들이 말하기를 ‘최유청이 대신의 체면을 잃었다’라고 하였으므로 남경유수사로 강직되었으며 이어서 충주와 광주 목사로 강직 되었다.(毅宗初 陸知奏事 出納惟允 驟進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判兵部事 時郎中鄭鉞 坐陰結大寧侯流外 惟淸鉞妹婿也 鉞宴大寧 惟淸假器皿 臺諫劾 以失大臣體 貶南京留守使 連貶忠廣二州牧使)”하고 있다.

의 인품이 후덕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비록 『불경』 공부 많이 해서 불경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하지만, 그의 세계관은 超人文的인 것이 아니고 人文的인 것이다. 특히 고려 시대의 그가 생겼던 시기의 세계관으로는 그 생각이 뛰어났다고 할 수 있다.

### 5. 遊興과 省察

본 항에서는 시인의 삶과 시가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한 인간의 삶이 원숙되는 시기는 나이가 들어 경륜이 쌓였을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젊은 나이에는 그러한 원숙미가 나타날 수가 없을 것이다. 최유청도 마찬가지로 그가 좀 더 젊은 나이에 지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작품은 그 작품이 원숙하다고는 하기 어렵다. 그가 젊었을 때에 그는 삶은 즐기면서 살았던 것이다. 이어서 「잡흥」 가운데 그 일곱 번째의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嬌雲弄晴暉	꽃다운 구름은 맑은 햇빛 희롱하고
庭草綠如染	뜰의 풀들은 물들인 듯 푸르러라
鳥酣嘯嚶嚶	새들은 흥에 겨워 지저귀고
蝶喜飛苒苒	나비는 기뻐서 나풀거리네
芳序忽如此	아리따운 계절은 이러한데
愁眉不須斂	근심 찬 눈썹 찡그려 무엇하리
擬待桃李開	복사꽃 오얏꽃 필 때를 기다리자
瓮頭方漉漉	술 항아리 가에서 흠뻑 취하리니

이 시는 최유청이 좀 젊었을 때에 지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시인은 자연에 심취되어 조용한 기상을 보이고 있다. 이 시에 나타난 계절은 봄이다. 풀이 푸르며 새들이 지저귀고 또 나비가 나풀거리는 절이기 때문이다. 계절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인데 구태여 얼굴을 찡그리며 수심에 빠져 있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수심을 떨쳐버리고 봄날의 정취를 즐겨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며 최유청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그는 벌써 세상의 이치를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그는 바로 세상을 어둡고 절망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가능한 세상을 밝고 희망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다. 그의 세계관 내지 인생관은 바로 樂觀主義의 世界觀 내지는 人生觀이라고 하겠다. 이어서 「遊奉慶寺」와 「杏花」를 들어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유봉암사」를 들면 다음과 같다.

春盡山花掃地無 봄 다하니 산 꽃은 쓴 듯이 졌고  
 綠林高下鳥相呼 숲의 새는 날고 날며 짝을 부르네  
 故知楊柳風流在 전작에 알겠도다 실버들 풍유로워  
 飛絮時來繞座隅 흩날리는 버들꽃 자리에 답쌓이네

이 시는 다음의 「행화」와 더불어 七言絶句體이다. 위의 시의 시간적 배경이 이른 봄인데 비해서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은 늦은 봄이라 할 수 있다. 벌써 꽃이 다 지고 말았으니까. 봄이 지나가고 있으니 새들은 봄날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 숲 속을 날아다니며 자태를 부리고 있다. 『서경』에서 “중춘이 되면 백성들은 서로 분산하고 새들은 앞에서 깨어나고 짐승들은 교미를 한다<sup>8)</sup>”는 철이 바로 봄인 것이다. 그 뿐이라, 실버들이 가지를 드리우고 하늘거러니 그 것을 보는 이의 마음을 흔들 어 놓아 버린다. 이처럼 그는 자연의 변화, 그 가운데서도 봄을 완상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는 고려 전기의 귀족들의 삶과 서로 결부하며, 그 귀족들 사이에 유행한 遊興文學과도 상통한다. 다음 시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平生最是戀風光 한평생 가장 즐거움이 풍광이라  
 今日花前興欲狂 오늘 따라 꽃 대하니 미칠 듯만 해  
 願借漆園胡蝶夢 차리리 장자의 나비 꿈을 빌려  
 逸枝攀藥恣飛揚 꽃가지·꽃술에 임처럼 날고 지고

이 시는 그가 자연의 경치를 완상해 왔지만, 오늘따라 붉게 핀 꽃을 대하니 바로 자신이 꽃에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장자가 나비 꿈<sup>9)</sup>을 꾸었듯이, 자신은 꽃에

8) “以殷仲春 厥民析 鳥獸孳尾” 『書經』 「堯典」

9) 『莊子』 「財物論」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옛날에 나는 나비가 된 꿈을 꾸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분명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였다. 훨훨 날아다니니 너무나 즐거워 마음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장주라는 사실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갑자기 꿈에서 깬 순간 나는 분명히 장주가 되어 있었다. 도대체 장주가 나비 꿈을 꾸 것인가, 아니면 나비

빠져서 주체와 객체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유흥문학의 극치를 이룬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최유청, 그는 한편으로는 유흥문학에 깊숙이 빠져 자연을 완상했지만, 그는 완전히 유흥문학만을 한 사람은 아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유흥문학은 고려 시대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문학 가운데 한 갈래이다. 고려 시대는 우리나라 서정 문학의 가장 전성기였기 때문이다. 풍부한 서정을 읊조린 한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고려 속요라고 하는 것도 보면 서정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최유청이 유흥 문학을 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는 고려 시대 三代門閥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의 부친과 그 자신 그리고 그의 여덟 아들들이 모두 학문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昌原 崔氏의 門閥을 이루었던 것이다. 다음은 「九日和鄭書記」라 하여 칠언절구로 된 두 수의 시가 있는데, 이 시는 崔惟清이 그의 처남인 鄭紱의 시에 화답한 것이다.

華髮風情敵少年	늙어도 흥취는 젊은이 못지 않고
兩行紅粉列前筵	양 옆의 미녀들과 앉자리 같이 했네
歌聲舞態皆隨分	노랫가락 춤사위 제마다 분수에 맞고
一餉猶堪發燦然	한 순배 돌아가니 웃음이 절로 나네

黃花紅葉又今年	올해도 국화와 단풍잎 보게 되니
老興滔滔對綺筵	꽃다운 자리에 늙은이도 흥에 겨워
飲罷狂歌倚殘月	마시고 부르다 보니 달은 기울고
一生襟抱更超然	한 평생의 회포 다시 초연해 지네 <sup>10)</sup>

이 시를 짓게 된 동기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처남인 정서에 시에 대해 화답이다. 하지만, 이 시의 모태가 되는 정서의 시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동문선』에 정서

---

가 장주된 꿈을 꾸는 것인가. 장주와 나비는 분명히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구별하기가 애매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사물의 변화이기 때문이다.(昔者莊周夢爲胡蝶 栩栩然胡蝶也 自喻適志與 不知周也 俄然覺 則蘧蘧然 周也 不知周之夢爲胡蝶與 胡蝶之夢爲周與 周與胡蝶 則必有分矣 此之謂物化)<sup>10)</sup>라고 하는 구절이 있다.

10) 『東文選』에는 ‘一生’이 ‘十生’으로 되어 있으며, 『三韓詩龜鑑』에는 ‘一生’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동문선」보다 일찍 엮은 『삼한시귀감』의 표기에 따르기로 한다.



의 시는 단 한 수만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sup>11)</sup>.

이 시의 계절은 가을이고, 하루로 말하면 밤이다. 가을과 밤이 주는 이미지는 그다지 밝지도 희망적이지도 않다. 이에 시인 자신도 이미 늙어 버렸으니 상당히 절망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첫 수에서 보면, 늙어도 젊음이 못지 않는 흥이 있어, 여인들을 양 옆에 두고 술을 마신다고 했다. 그 뿐이 아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다. 즉, 술과 여인이 있고 또 노래와 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은 바로 잔치 마당인 것이다. 어떤 정자나 아니면 주점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읊조린 시이다.

또 두 번째의 시는 첫 번째 시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체적인 계절이 나오고 있는데, 즉 국화가 피고 단풍이 물드는 철인 가을이다. 첫 번째 시에서는 단지 유희만을 나타낸 것이라면 두 번째 시에서는 유희만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서산에 기우는 달처럼 자신의 인생도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는 달을 보니 자신의 일생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일생을 돌이켜 보니 마디마디의 회포가 다시 살아나 한 인간을 숙연하게 만든다. 이처럼 이 시는 한편으로는 흥을 즐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성찰하여 인생을 관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동문선』 권 19에 실려 있는 「偶書」라는 시인데, 이 시에서는 위의 「九日和鄭書記」보다 한층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다.

老閱詩書手不停	늙도록 시서를 부지런히 뒤적여도
可憐事業竟何成	평생 한 일 없어 애달픈 마음
西窓風雪寒蕭索	서창에는 눈보라가 을씨년스러운데
獨對殘燈笑一生	홀로 등불을 마주하니 일생이 한심하네

먼저 起句를 보면, 늙어서도 詩와 書를 부지런히 뒤적거린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은 詩와 書이다. 겉으로 드러난 의미로만 보면 시는 바로 운문을 가리키는 것이고, 書는 산문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로만 생각하면 이 시를 지은 시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와는 사뭇 달라진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시와 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며, 왜 시와 서란 말을 썼

11) 『東文選』卷 19를 보면 五言絕句體로 된 「題墨竹後」라는 시 한 수가 실려 있는데, 그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閑餘弄筆硯 寫作一竿竹 時於壁上 看 幽姿故不俗”이 그것이다.

는가를 안다면 바로 이 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서정적 자아, 즉 시인이 말하고 있는 詩의 의미는 『시경』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 서의 의미는 『서경』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시경』과 『서경』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더욱 막연해 지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그렇게 막연한 것만은 아니다. 이 시에서 시인이 말하고자하는 『시경』은 바로 喜·怒·哀·樂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시경』 속에는 인간의 모든 감정과 아울러 산천 초목, 동물과 식물의 이름이 가득 들어 있다. 『시경』 속에는 자연의 모든 현상과 인간의 감정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서경』은 어떠한가? 『서경』은 위로는 당나라 요임금부터 아래로는 주나라까지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와 그에 얽힌 여러 사건들이 가득 차 있다. 즉, 인간이 살아 온 인생 역정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承句에서는 시인 자신이 일생동안 살아온 인생 역정을 회고해 본다.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한 평생동안 한 일이라곤 별로 없는 것 같다. 인간이란 누구나 태어나서 죽게 마련인데, 살 날보다 살아 온 날이 더 많은 시인의 입장에서 서서 자신의 일생을 회고해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생동안 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일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겸손하게 해 놓은 일이라곤 아무 것도 없다고 하고 있다. 위의 起句가 좀 더 보편적인 면을 묘사한 것이라면, 이 承句는 보다 특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인 자신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轉句에서는 시인 자신의 마음 속의 무드를 묘사하고 있다. 서창에서는 풍설이 을씨년스럽다고 했으니까. 이 轉句도 언뜻 보면 단지 자연 현상에 대한 묘사만 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轉句를 가만히 보면, 서창의 풍설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 시인의 처지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듯이 시인의 인생 역정도 서서히 기울어 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창문도 서쪽이요, 자연의 현상도 사계절로 말하면 겨울이다. 오행 가운데서 서쪽은 가을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가을과 겨울의 현상이다. 가을과 겨울은 인간에게 어떤 풍요로움이나 희망을 주지 못한다. 가을과 겨울이 주는 뉘앙스는 바로 고뇌와 절망인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절망을 하지 않는다. 結句에서 홀로 등잔을 대하고 앉아서 자신의 한평생을 돌이켜 보고는 빙그레 웃는 것이다. 여기서 시인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 시는 젊은 이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원숙미

를 보여주고 있다. 비단 시로서의 원숙미 뿐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원숙미를 아울러 보여 주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최유청 시의 양면성을 단지 개인에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시풍에서 찾을 수 있다. 본고의 모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최유청이 활동했던 시기는 唐詩와 宋詩가 병존하고 있었을 때였다. 최유청의 시에서 보면, 당나라 때 시인인 李白이나 王維의 기풍이 보이고 있고 또 송나라 때의 梅堯臣·歐陽修·林逋·蘇東坡 등의 시풍이 보이기도 한다.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 6. 마무리

본고는 고려 시대의 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한 부분으로 집필되었다. 따라서 이 한 부분으로 전체를 다할 수는 없다. 또 고려 시대 전체의 문학의 풍조나 그 시대에 다른 사회정황·사상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점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의 논문이 전체를 이룰 때 보완하기로 하겠다. 그러면 이상의 논지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최유청이 생존했던 시기는 고려의 文風이 한창 일어 날 때였다. 그 당시는 唐詩와 宋詩가 병존하던 때로 차츰 唐詩보다는 宋詩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최유청의 시도 이러한 시대 조류를 따르고 있다.

그의 시에서는 聲과 이미지 意味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 시에 나타난 평측의 문제를 두고 볼 때 평성은 개방·진전·희망·밝음 등의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반해서 측성은 폐쇄·정지·절망·어두움 등의 이미지를 주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이 그의 시의 의미와 잘 부합하여 그가 의도한 시의 의미를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다.

그의 시의 표현법 가운데서 특이한 것은 描寫의인 것이 아니라 陳述의인 것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는 마치 이야기하듯 詩句를 엮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그의 성격이 우회하기보다는 솔직하고 담백한 것을 좋아한 데서 그의 시가 나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술적인 표현은 송나라의 매요신이나 구양수·임포의 시와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그의 世界觀은 悲劇的인 것이 아니라 樂觀的인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세계를 否定的인 것이 아니라 肯定的으로 보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그의 세계관은 그의

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雜興」 9수를 들 수 있다. 그가 비록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좌천되었을지라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의연하게 그 상황을 맞았던 것이다.

그는 한편으로는 고려 전기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遊興에 빠졌다. 그러나 그는 유희만을 전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는 유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을 돌이켜 생각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우흥」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詩와 書, 즉 『詩經』과 『書經』의 의미를 내세워 자신의 생각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즉, 『시경』은 인간의 모든 감정이 녹아 있는 책이고, 『서경』은 개인이나 나라의 興亡盛衰를 담은 책이다. 따라서 최유청 자신은 이러한 인간의 감정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관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그의 생각의 규모는 좁지 않고 넓은 것이다. 그것은 그의 인품이 厚德한 것과도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이상으로 본고를 끝맺기로 한다. 여기서 미진한 부분은 고려 시대의 시 전체를 고찰할 때 보완하기로 한다. (참고문헌은 각주와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붙이지 않는다.)